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슈리마트를 토대로 너희는 침묵의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서 평화를 유산으로 받는다. 모든 것이 평화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질문: 무엇을 주된 기반으로 새로운 세계가 그 위에 세워지느냐?

대답: 순수성이다. 새로운 세계를 세우려고 아버지가 브라마의 몸에 들어올 때, 너희는 형제자매들이 된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의식은 모두 끝난다. 이 마지막 생에 순수해지면 그때 너희는 순수한 세계의 주인들이 된다. 너희가 형제자매처럼 함께 살 것이며, 악덕의 시선은 전혀 갖지 않을 것이고 서로 주의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겠다고 너희들은 자신에게 약속한다.

노래: 오 신부들아 깨어라, 일어나라! 새로운 새벽이 곧 동트려 하네...

음 산티. 가장 사랑스럽고 영적인 너희 자녀들이 노래를 들었고, 자아각성의 원반이 너희의 지각에서 돌았다. 아버지도 역시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라 불리는데, 왜냐하면 세계의 처음, 중간, 끝을 안다는 것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없다. 브라민인 너희들의 모든 것이 침묵에 달려있다. 모든 인간이 그를 평화의 공여자라고 부른다. “평화의 공여자여!” 누가 평화를 주는지, 누가 우리를 평화의 나라로 데려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오직 너희 자녀들만이 이것을 안다. 오직 너희 브라민들만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가 된다. 신인들은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이라고 불릴 수 없으니, 낮과 밤만큼 차이가 크다.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설명하는데, 너희들은 각자가 하는 노력에 따라 등수대로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이다. 주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아버지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희가 평화의 유산을 차지한다는 뜻이다. 평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너희의 수명은 늘고, 몸은 병에 걸리지 않게 된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너희를 스와다르산차크라다리로 만들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은 영혼이다. 아버지도 역시 그것인데, 왜냐하면 그는 사이클의 처음,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노래에서 새 세계가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들었다. 이런 노래들은 인간들에 의해 작곡되어 왔다.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그 모든 것의 핵심을 설명한다. 그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모두 형제들이다. 아버지가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면 너희는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된다. 너희 각자는 브라마 쿠마르, 또는 브라마 쿠마리다. 이것이 너희의 지각 안에 남아있으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의식이 없어진다. 우리가 실제로 형제라는 것을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피조물을 창조하면 그때 우리는 형제자매들이 되고, 사악한 시선은 끝난다. 아버지는 또 우리가 “오 평화자여, 오소서!”라며 소리쳐 불러왔다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이제 내가 왔으니, 이 마지막 생에 순수하게 지내라고 너희들에게 일러준다. 그러면 너희는 순수한 세계의 주인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전시회에서 쓰는 그림들이 모든 가정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 자녀들은 브라민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집안에 반드시 이 그림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그림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는 아주 쉽다. 84생의 원반이 너희의 지각에 들어있다. 물론 너희에게 선생을 보내줄 수도 있어서, 그녀가 가서 봉사한 다음에 떠날 수도 있다. 너희들은 전시물들을 진열해 둘 수 있다. 신봉의 길에서, 크리스나를 숭배하는 방법이나 만트라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경우엔 브라민 사제를 오도록 초대한다. 그가 날마다 와서 뭔가 예식을 거행할 것이다. 너희들도 역시 누군가를 초청할 수 있다. 이 지식은 사실 아주 쉽다. 아버지는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서 세계를 창조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브라마 쿠마르, 쿠마리들은 형제자매들이 되었을 것이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 형제자매처럼 함께 살 것이고, 악덕의 시선은 전혀 없을 거라고 너희들은 각자 약속한다. 너희들은 서로 주의를 주면서 발전할 것이다. 주된 것은 기억의 순례다. 저 사람들은 과학의 힘으로 저 높이 올라가려고 참으로 힘겹게 애쓴다. 그러나 저 위에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과학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불린다. 너희들은 지금 슈리마트를 기반으로 침묵의 심연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들은 과학을 가진 반면에, 너희는 침묵을 가지고 있다. 영혼인 너희가 침묵의 화신이라는 것을 자녀인 너희들은 안다. 너희들은 그저 제 배역을 연기하려고 몸을 취할 따름이다. 아무도 행위를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너희 자신을 그 몸과는 별개인 영혼이라고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쉽다. 무엇보다 시바를 숭배하는 나의 신봉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라. 모든 신봉 중에서 가장 고결한 신봉은 시바에 대한 신봉인데, 그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제 왔다는 것과 그가 직접 우리 모두를 데리고 돌아가리라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안다. 적절한 때에 드라마에 따라서 우리는 카르마티트 단계에 도달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멸망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영혼들이 사토프라단하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아버지의 슈리마트를 따라야 한다. 기타는 슈리마드

바가워드 기타라고 불린다. 이것은 대단한 칭송이다. 신인들은 완전히 덕성으로 가득하며 완전히 악덕이 없다고 칭송된다. 아버지 자신이 와서 우리를 완전히 순수하게 만든다. 아버지가 와서 세계를 완전히 순수하게 만드는 것은 세계가 완전히 불순해질 때다. 모든 이가 자기들이 신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므로 천국의 유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인류의 아버지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형제자매들이 되었다. 아버지는 지난 사이클에도 왔었다. 그래서 시브 자안티(시바 탄신일)가 경축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아버지에게 약속하기를, “바바, 저희는 동반자로 함께 살면서 순수한 생활을 영위하겠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지시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한다. 이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지금 이것은 너희의 마지막 생이다. 이 죽음의 세계는 끝날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지각 있게 되었다. 만일 누군가 제 자신을 신이라고 칭한다면 너희는, ”신은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는 공여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드라마에서의 연극이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한다.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을 자아각성의 원반을 돌리는 자들로 만들고 있다. 아버지가 말하는데, 봉사하며 바쁘게 지내라. 모든 가정에서 전시를 시작해라. 이보다 더 큰 자선행위는 없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자선만큼 큰 자선은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 하나만 기억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기를, 오 정화자, 해방자, 안내자여, 오소서! 한다. 너희들은 또 판다바라고도 기억되는 자들이다. 아버지는 안내자다. 그는 모든 영혼을 데리고 돌아간다. 저 안내자들은 육신을 가진 반면, 그 한 분은 영적인 안내자다. 저런 순례들은 육신의 순례인 반면, 이것은 영적인 순례다. 황금시대에는 신봉의 길에서의 육신의 순례가 없다. 거기서 너희는 숭배받을 가치가 있다. 아버지는 지금 너희를 참으로 지각 있게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의 지시들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뭔가 의문 등이 있으면 물어봐야 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영혼의식이 되어라.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해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냐? 반 사이클 동안 너희는 나를 사랑해왔다. 단 한 분에 대해서 이름들이 많다. 그렇게 여러 이름들이 주어져왔고 사원들이 참으로 많이 지어졌다. 그러나 나는 한 분 뿐이다. 나의 이름은 시바다. 나는 5천 년 전에 바라트에 들어와서 너희 자녀들을 입양했다. 나는 지금 너희를 다시 한 번 입양하고 있다. 너희들은 브라마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또 손자손녀들이기도 하다. 여기서 유산을 차지하는 것은 영혼이다. 이것에는 형제나 자매라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공부해서 유산을 차지하는 것은 영혼이다. 이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이에게 있다. 너희 자녀들이 이 낡은 세계에서 보는 것은 뭐든 전부 다 파괴될 것이다. 마하바라트 전쟁은 정말로 있다. 무한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무한한 유산을 주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무한한 지식을 준다. 그러므로 무한한 버림이 있어야 한다. 한 사이클 전에도 아버지가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말이 희생되는 이 희생의 불이 만들어졌었다. 그 다음에 왕국을 위해서 황금시대의 새로운 세계가 반드시 필요했었다. 낡은 세계가 파괴되었었다. 그것이 단 5천년의 일이다. 천국의 문이 열린 것은 이 전쟁이 일어남으로써였다. 현판에, “오셔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라고 써라. 만일 너희가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엔 다른 이들에게 와서 설명해 달라고 초대해라. 그러면 너희의 수가 차츰 늘 것이다. 프라자피타 브라마의 자녀인 너희 브라민들이 많다. 유산은 시브 바바에게서 받는다. 그는 모든 이의 아버지다. 너희가 브라민에서 신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 지각에 분명히 간직해라. 우리는 신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브라민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는 비슈누의 나라로 갈 것이다. 이 지식은 아주 쉽지만, 수백만 중에서 단 몇 명만 나온다. 그토록 많은 이들이 전시회에 오지만, 거의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일부 어떤 이들은 그저 이것을 칭찬하며, 이것이 아주 좋으니 다시 오겠다고 한다. 아주 드물게, 극소수만이 와서 7일 코스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7일이 대체 무엇이야? 기타는 7일간 독송된다. 너희들도 역시 7일 동안 밋티에 들어 있어야 한다. 너희 자신을 영혼이라 여기며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써 쓰레기들이 전부 너희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너희들은 반 사이클 동안 축적해온 육체의식의 더러운 질병들을 없애야 한다. 영혼의식이 되어라! 7일 코스는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일부 어떤 이들은 단 1초면 화살에 명중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는 자들은 빨리 앞질러갈 수 있다. 그들은 경주해서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차지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미 잘 만들어진 아주 좋은 요점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는 심지어 더 오래된 이들보다도 더 빨리 간다. 전시회에서 그림 등을 설명하기는 아주 쉽다. 만일 너희가 설명할 수 없다면, 매일 와서 설명해 줄 다른 자매를 한 명 초대해라. 그것이 5천 년 전에는 락쉬미와 나라얀의 왕국이었다. 그것은 1,25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그렇게 짧은 이야기다. 우

리는 신인들이었고, 그 다음엔 전사들, 그 다음엔 상인들, 그리고는 슈드라들이 되었다. 영혼인 나는 브라민이 되었다. “함 소(과거에 내가 그랬고, 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의 의미가 아주 정확하게 설명된다. 다양성의 형태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브라민들과 시브 바바는 거기에 빠져 있었다. 그 그림의 의미를 아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 자녀들은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너희들은 의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 너희가 만일 죄 되는 행위의 정복자가 되어 고결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 왜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는가,’에 관해 생각하기를 그만둬라. 그 모든 것을 중지하고 다만 타모프라단한 데서 사토프라단하게 되려는 한 가지 생각만 해라.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정도만큼 너희는 죄 되는 행위의 정복자가 되어 고귀한 지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것과 더불어 낭비적인 것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너희의 머리를 망치지 마라.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잊지 않는 것이다. 누구와도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희의 시간은 매우 귀중하다.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라. 갖가지 어려움이 올 테고 손실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결코 잊지 마라. 우리가 순수해져야 하는 것은 이 기억을 통해서다. 우리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고귀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 늙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귀한 지위를 차지하는데, 왜 너희는 하지 않아야겠느냐? 이것도 역시 공부다. 너희들은 책들 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야기 전체가 너희 지각에 들어있다. 그것은 참으로 짧은 이야기다. 그것은 1초의 문제다. “삶 속의 해방은 1초 만에 받는다.” 주된 것은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이다. 너희를 세계의 주인들로 만들고 있는 아버지를 너희들은 잊는다! 너희들은 누구나 다 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아! 그러나 너희가 무엇 때문에 다른 이에 대해 걱정하느냐? 학교에서 모든 이가 다 장학금을 타야 한다면 염려하느냐? 그들은 그저 공부하기 시작할 뿐이다. 각자의 노력을 보면 그들이 각자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될지 이해된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잃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떼라고 말한다.

실천 요지:

1. 지금 이때의 시간은 대단히 귀중하다. 쓸데없는 일에 그것을 낭비하지 마라. 폭풍이 아무리 많이 오고 어떤 손실이 초래되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머물러 있어라.
2. 다만 그저 타모프라단한 데서 사토프라단하게 변할 것만 생각해라. 다른 아무 것도 생각하지 마라. "함 소, 소 함"의 짧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요령 있게 설명해라.

축 복: 진정으로 사랑하며 협조적이 되어 겸손의 갑옷을 입고 낭비라는 라반을 불에 태워라.

누가 너희의 집회에서 약점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산스카르나 성질의 대립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해라. 누가 너희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해도 너희는 그저 성자가 되어라. 누가 뭔가 그릇된 일을 하고 있어도 너희는 그저 옳은 길에만 머물러 있어라. 심지어 누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도 그저 그들에게 사랑의 물만 줘라. “이게 뭐야? 이걸 왜 이렇지?” 이런 생각들을 함으로써 불에 기름을 퍼붓지 마라. 그저 겸손의 갑옷만 입어라. 겸손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랑과 협조가 있을 것이다.

슬로건: “나의 것”이라는 제한된 갖가지 느낌이나 의식을 “나의 바바” 안에 합쳐 넣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